

새로운 경제시스템 창출을 위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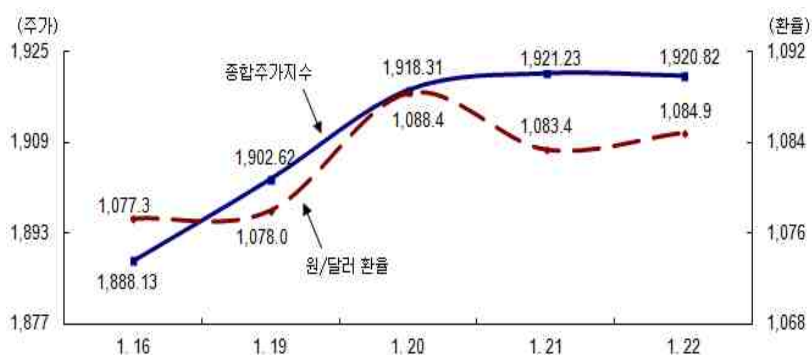
경제주평

Weekly Economic Review

- 외국인 관광객 증가와 경제적 파급효과 전망
- 2020년 방한 외국인 관광객 2,300만 시대 도래

週間 主要 經濟 指標 (1.16~1.22)

Better than
the Best!



차 례

| | |
|---------------------------|----|
| 주요 경제 현안 | 1 |
| □ 외국인 관광객 증가와 경제적 파급효과 전망 | 1 |
| 주요 국내외 경제지표 | 14 |

□ 본 자료는 CEO들을 위해 작성한 주간별 경제 경영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 관 : 한 상 완 연구총괄본부장 (2072-6230, swan@hri.co.kr)

□ 경제연구본부 : 백 다 미 선임 연구원 (2072-6239, dm100@hri.co.kr)

Executive Summary

□ 외국인 관광객 증가와 경제적 파급효과 전망 - 2020년 방한 외국인 관광객 2,300만 시대 도래

■ 개요

관광 산업은 타 산업 대비 외화 획득 효과가 크며 내수 증진 및 고용 창출 부문에 있어서도 경제 기여도가 높은 산업이다. 최근 관광 산업은 한국을 찾는 아시아 신흥국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국내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아시아 신흥국의 경제 성장에 따른 2020년 방한 관광객 수요를 추정하고 국내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 효과를 분석하였다.

■ 현황

최근 한국을 방한하는 관광객 수가 급증하고 있다. 2014년 방한 관광객 수는 1,400만 명을 돌파하면서 2013년의 1,217만 명을 넘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방한 관광객 중에서도 특히 아시아 신흥국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기존에는 일본 등 아시아 선진국 국가에서의 방한이 전체의 절반을 상회(2005년 50.5%)했으나, 아시아 신흥국에서의 방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비중이 2014년 56.5%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아시아 신흥국은 약 41억 명에 달하는 거대한 인구 규모 및 높은 경제 성장 추세로 향후에도 해외 관광 수요가 지속적인 증가세를 기록할 전망이다.

■ 외국인 관광객 증가와 경제적 파급효과 전망

(소득과 국제 관광 수요와의 연관성) 소득과 국제 관광 수요(해외 관광객 수)와의 연관성을 분석하기 위해 1995~2012년 90개국의 소득 및 인구, 해외 관광객 수 자료를 기초로 소득 수준과 해외 관광객 비중(i 국 해외관광객 수 / i 국 인구) 간의 관계를 추정하였다. 추정 결과 1인당 소득이 증가할수록 해외 관광객 비중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특히 소득 수준이 낮은 구간에서 소득 증가에 따른 해외관광객수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는 현상이 관측되었다.

(분석 방법) 소득과 국제 관광 수요와의 연관 분석 결과를 토대로 국가별 1인당 소득 변수를 통해 2020년까지 아시아 신흥국의 국제 관광 수요를 추정하였다. 이후 국가별 한국 방한 비율을 적용하여 이 중 한국으로 유입되는 관광객 수를 추정하였다. 방한 관광객 수 및 1인당 지출 경비를 기준으로 국내 총 지출액을 전망한 후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경제적 파급효과를 추정하였다.

(아시아 신흥국의 방한 관광객 수 및 경제적 파급효과 추정) UN의 세계 인구 전망에 따르면 2020년 경 아시아 신흥국의 인구는 약 36억 7천만 명으로 이 중 약 5억 8천만 명이 해외 관광을 위해 출국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중 한국을 방문하는 아시아 신흥국의 잠재적 방한 수요는 2020년 약 1,500만 명까지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중 중국에서 1,0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한하고 중국을 제

외한 신흥국에서도 약 500만 명 내외가 방한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시아 신흥국 관광객 방한으로 2020년 약 80조 5,000억 원의 생산 유발효과, 약 37조 5,000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 약 105만 명의 취업 유발효과가 발생하며 2020년 명목 GDP 의 약 1.7%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전체 방한 관광객 수 및 경제적 파급효과 추정) 선진국 및 기타 신흥국의 방한 관광객 수가 현재 추세를 유지한다고 가정할 경우, 아시아 신흥국 성장에 따라 2020년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잠재적 총 관광 수요는 약 2,300만 명까지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중 2020년 아시아 신흥국의 방한 관광객 수는 약 1,500만 명까지 증가하고 기타 신흥국에서 약 100만 명, 선진국에서 약 700만 명이 방한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 한국을 방문하는 해외 관광객 수의 증가로 약 117조 2,000억 원의 생산 유발효과, 54조 5,000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 및 153만 명의 취업 유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2020년 명목 GDP 의 약 2.5%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2020년 방한 관광객 및 경제적 파급효과 추정〉

| | 방한 관광객 수(만 명) | | 생산 유발액 (조원) | | 부가가치 유발액 (조원) | | 취업 유발분 (만명) | |
|-----------|---------------|--------------|-------------|--------------|------------------------|------------------------|-------------|------------|
| | '13 | '20(E) | '13 | '20(E) | '13 | '20(E) | '13 | '20(E) |
| 아시아 신흥국 | 589 | 1,500 | 16.7 | 80.5 | 7.8 (0.5%) | 37.5 (1.7%) | 22 | 105 |
| 기타 신흥국 | 80 | 100 | 5.9 | 16.5 | 0.2 (0.0%) | 0.7 (0.0%) | 1 | 2 |
| 선진국 | 539 | 700 | 14.0 | 35.0 | 6.5 (0.5%) | 16.2 (0.7%) | 18 | 46 |
| 전체 | 1,217 | 2,300 | 31.3 | 117.2 | 14.5 (1.0%) | 54.5 (2.5%) | 41 | 153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주 : () 안은 명목 GDP 대비 비중.

■ 시사점

향후 외국인 관광객 2,300만 시대(아시아 신흥국 관광객 1,500만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첫째**, 향후 국내 관광 시장의 주요 고객으로 부상할 중국, 동남아 등 아시아 신흥국 관광객 유치 확대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관광객의 재방문율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고 품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셋째**, 관광객 1인당 지출 확대를 위해 특히 개별관광객 공략이 요구된다. **넷째**, 다양한 맞춤형 특화 상품 개발을 통한 지방 관광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 **다섯째**, 관광안내정보의 표준화·체계화를 기반으로 플랫폼 및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통해 맞춤형 관광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1. 개 요

- (연구 배경 및 목적) 향후 아시아 신흥국의 국내 관광 시장에 미칠 영향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2020년 방한 관광객 수요를 추정하고 경제적 파급 효과를 전망
- (연구 배경) 관광 산업은 타 산업 대비 외화 획득 효과가 크며 내수 증진 및 고용 창출 부문에 있어서도 경제 기여도가 높은 산업
 - 최근 한국 경제는 고도성장 이후 구조적 저성장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
 - 관광 산업의 외화가득률은 약 83%로 전산업 평균 73% 및 제조업 평균 59% 대비 높음¹⁾
 - 외래 관광객에 의한 숙박, 식·음료, 오락, 교통, 상품 구입 활동 등 소비 지출 증가는 곧 내수 시장의 확대와 연결됨
 - 또한 관광 산업은 노동집약적인 산업이기 때문에 여타 산업 대비 고용창출 효과가 높음
- (연구 목적) 최근 관광 산업은 아시아 신흥국 관광객 증가로 국내에 미칠 경제적 영향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2020년 방한 관광객 수요를 추정하고 경제적 파급 효과를 전망
 - 아시아 신흥국은 거대한 인구 규모, 소득 수준의 지속적 증가 등을 기반으로 세계 관광 시장에서의 영향력 확대가 예상됨
 - 특히 한국과는 거리적 인접성, 문화적 연관성 등으로 여타 국가 대비 국내 관광 시장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 방한 관광객의 약 60% 비중을 육박하는 아시아 신흥국의 경제 성장에 따른 국제 관광 수요를 예측한 후, 이 중 방한 관광객 수요를 추정
 - 또한 아시아 신흥국의 방한 수요 예측을 기반으로 2020년 방한 관광객 수요를 추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내 관광 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 효과를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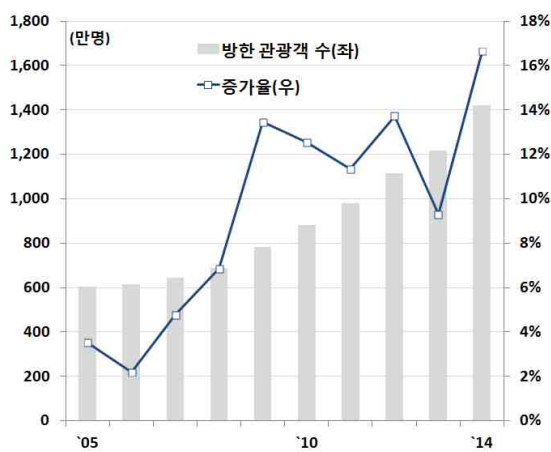
1)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1), '관광산업의 경제 효과 분석'.

2. 현 황

○ (한국 관광 시장 현황) 최근 한국을 방한하는 관광객 수가 급증하면서 2014년 방한 관광객 수가 1,400만 명을 돌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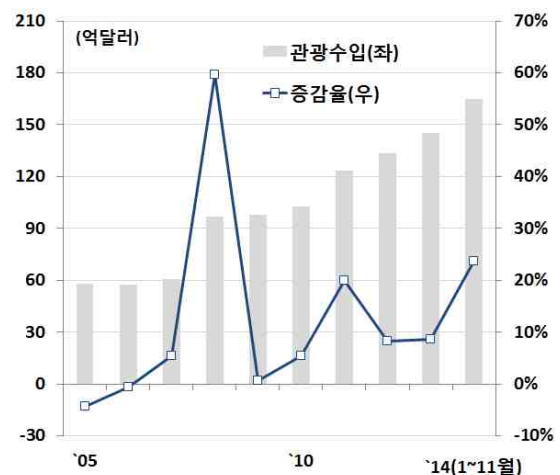
- 2014년 방한 관광객 수가 1,400만 명을 돌파하는 등 최근 증가 추세 지속
 - 한국을 방문한 관광객 수는 2014년 약 1,420만 명으로 2013년의 1,217만 명을 넘어 역대 최고 수준
 - 방한 관광객 증가율은 2005년 3.5%로 2009년까지 한 자리 수에 불과했으나 2010년 12.5%, 2011년 11.3% 등으로 급증했으며 2014년에는 전년대비 약 16.6% 성장
- 방한 관광객 수 증가로 관광수입 역시 증가하면서 관광수지 적자 폭이 감소하는 추세
 - 2014년 1~11월 누적 기준 관광수입은 약 164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약 23.6% 급증
 - 2014년 1~11월 누적 기준 관광수지는 약 -15억 달러 적자로 전년동기 적자 규모 -25억 달러 대비 약 9억 달러 감소
 - 즉, 방한 관광객 수 증가에 따른 관광수입 증가로 관광수지 적자폭도 감소하는 추세

< 방한 관광객수 추이 >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 관광수입 추이 >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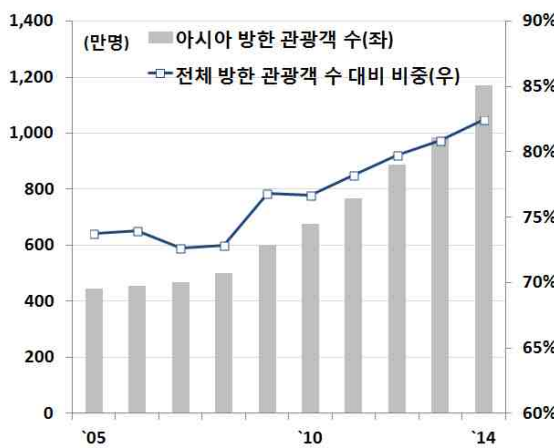
주 : 2014년은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 (아시아 신흥국 관광객 방한 증가) 중국, 태국, 필리핀 등 아시아 신흥국에서의 방한 비중이 56.5%로 급증하는 추세

- 한국을 방한하는 관광객 중 아시아 지역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
 - 아시아 방한 관광객 수는 2005년 약 440만 명에서 2014년 1,170만 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한 반면,
 - 아시아를 제외한 기타 지역의 방한 관광객 수는 현재 약 250만 명에 그침
 - 이에 따라 전체 방한관광객에서 아시아 지역의 비중이 2005년 73.7%에서 2014년 82.4%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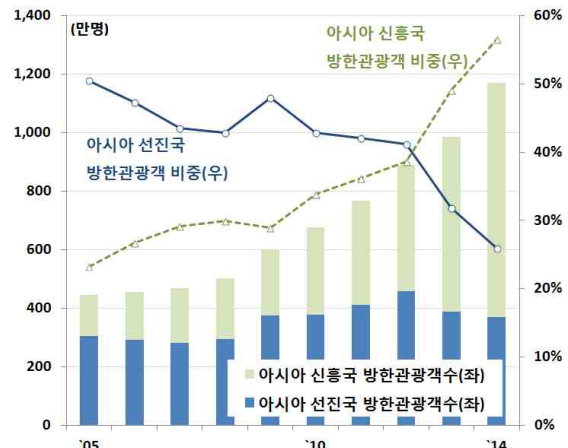
- 아시아 지역 중에서도 아시아 신흥국에서의 방한이 급증하는 추세
 - 기존에는 일본 등 아시아 선진국에서의 방한이 전체 방한 관광객의 절반을 상회(2005년 50.5%)했으나,
 - 이후 아시아 선진국에서의 방한 관광객 수는 3~400만 명 수준을 유지하는데 그치면서 전체 방한관광객 대비 비중이 2014년 25.9%까지 하락
 - 그러나 아시아 신흥국에서의 방한은 2005년 140만 명에서 2014년 약 800만 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2014년에는 아시아 신흥국 방한관광객 비중이 56.5%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

< 아시아 지역의 방한 관광객 수 및 비중 >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 아시아 지역별 방한 관광객 수 및 비중 >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주 : 아시아 선진국은 일본·대만·싱가포르·홍콩의 4개국이며, 아시아 신흥국은 위 4개국을 제외한 국가(18개국)로 분류.

○ (아시아 신흥국 관광객 성장 가능성) 아시아 신흥국은 거대한 인구 규모 및 경제 성장 추세로 향후 해외 관광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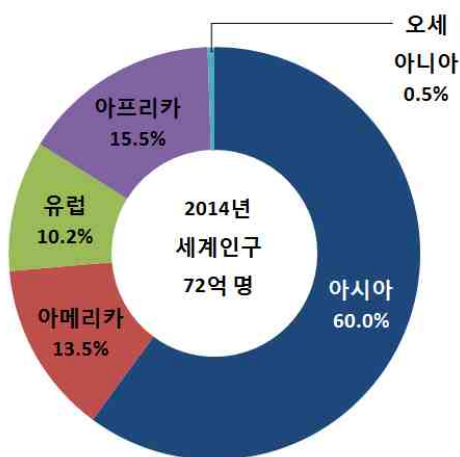
- 아시아 신흥국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인구 비중을 기록

- UN의 인구추계 자료에 의하면 2014년 세계 인구는 약 72억 4400만 명으로 추정
- 이 중 아시아 인구는 약 43억 4300만 명으로 추정되며 전 세계 인구의 약 60%를 점유
- 그 중에서도 아시아 신흥국 인구는 약 41억 3000만 명으로 전 세계 인구의 57%를 점유

- 아시아 신흥국은 여타 지역 대비 높은 성장 추세를 기반으로 소득 수준이 향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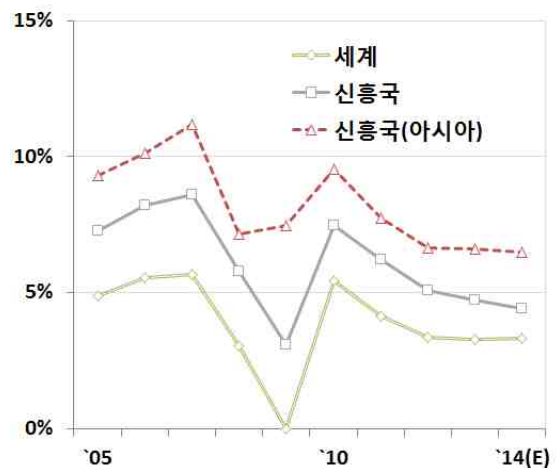
- 아시아 신흥국의 2014년 경제 성장률은 6.5%로 추정되는 가운데, 성장 추세는 최근 소폭 하락하는 추세
- 그러나 아시아 신흥국은 세계 및 신흥국 경제 성장률을 상회하는 성장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아시아 신흥국의 1인당 GDP(PPP기준)은 2014년 약 9,140달러로 2005년 4,220달러 대비 2배 이상 성장

< 세계 지역별 인구 비중(2014년) >



자료 : UN.

< 세계 지역별 경제성장률 >



자료 : IM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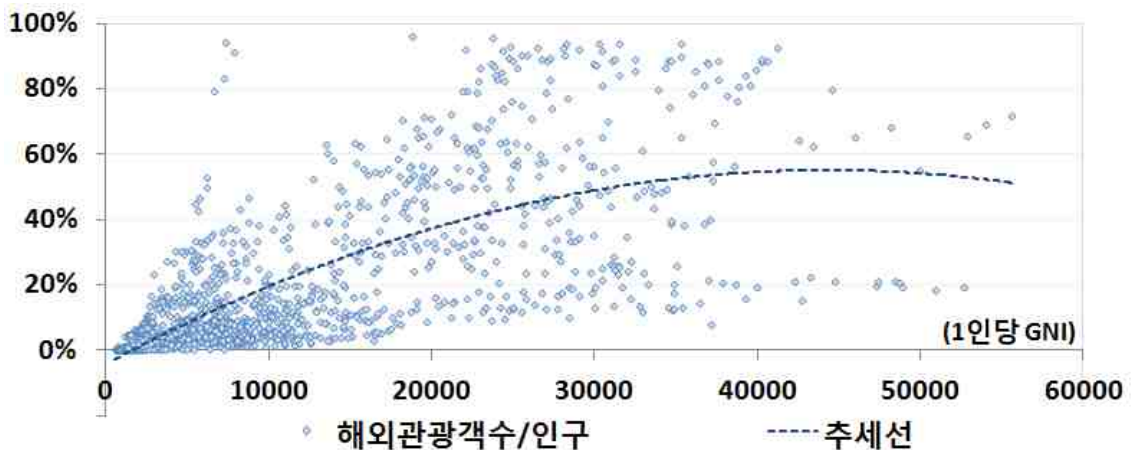
3. 외국인 관광객 증가와 경제적 파급효과 전망

(1) 분석을 위한 가정 및 방법

○ 소득과 국제 관광 수요와의 연관성²⁾

- 1995~2012년 90개국의 소득 및 인구, 해외 관광객 수 자료를 기초로 소득 수준과 인구 대비 해외관광객 비중 간의 관계를 추정
 - 소득과 관광수요와의 연관성을 추정하기 위해 1995~2012년 총 90개국의 1인당 GNI(PPP환율), 해외 관광객 비중(i 국 해외관광객 수 / i 국 인구)을 도출한 후,
 - 총 1,292개³⁾의 데이터를 2차 방정식을 적용해 소득과 국제 관광 수요와의 연관성을 분석
- 소득 수준이 증가할수록 해외 관광객 비중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1인당 소득이 증가할수록 해외 관광객 비중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특히 소득 수준이 낮은 구간에서 소득 증가에 따른 해외관광객수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는 현상이 관측됨

< 소득 수준 증가에 따른 해외 관광객 비중 변화 추이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IMF, World Bank, UNWTO 자료 이용).

주 : 추세선은 2차 방정식을 적용.

2) 국제 관광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경제 변수로 소득, 환율, 여행 비용 등이 고려되나 본 연구에서는 소득이 국제 관광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만 분석.

3) 1995~2012년 90개국의 데이터 중 일부 년도의 결측치를 제외.

○ 분석 방법4)

- 아시아 신흥국 국가별 1인당 소득 및 해외 관광객의 한국 방한 비율을 통해 방한 해외 관광객 수를 추정5)
 - 1인당 소득을 통해 2020년까지 아시아 신흥국의 국제 관광 수요(해외 관광객 수)를 추정
 - 추정 기준은 소득 수준 증가에 따른 해외 관광객 비중의 추세 자료를 적용
 - UN 및 IMF 전망 자료를 통해 2020년 국제 관광 수요를 추정한 후, 방한 관광객 수 추정을 위해 아시아 신흥국 국가별 해외 관광객의 한국 방한 비율(i 국의 방한 해외관광객 수 / i 국의 해외 관광객 수)을 적용
- 방한 관광객의 국내 지출액을 기반으로 산업연관분석을 수행하여 경제적 파급효과를 추정
 - 방한 관광객의 국내 지출액은 개별 관광객 1인당 한국 지출 경비의 과거 3개년 증가율을 기반으로 추정
 - 경제적 파급효과 추정을 위해 산업연관표를 기준으로 관광 지출과 연관성 높은 산업만을 분류하여 산업연관분석을 시행

(2) 아시아 신흥국의 방한 관광객 수 및 경제적 파급효과 추정

○ 아시아 신흥국의 방한 수요 추정

- (아시아 신흥국 해외관광객 수 추정) 2020년 아시아 신흥국의 해외 관광객 수는 약 5억 8천만 명으로 예상
 - UN의 세계 인구 전망에 따르면 2020년 경 아시아 신흥국의 인구 수는 약 36억 7천만 명으로 추정되며,
 - 이 중 약 5억 8천만 명이 해외 관광을 위해 출국할 것으로 전망
- (한국 방한 비율 추정) 아시아 신흥국의 해외 관광객 중 약 1~8%가 한국을 방문하는 것으로 가정

4) [별첨] 참조.

5) 기타 신흥국 및 선진국의 방한 수요는 현재 증가 추세가 지속된다고 가정하고 최근 3년간 연평균 증가율을 이용해 추정.

- UNWTO의 해외 관광객 수 및 문화체육관광부의 방한 관광객 수를 이용해 아시아 신흥국 국가별 해외 관광객의 한국 방한 비율(i 국의 방한 해외관광객 수 / i 국의 해외 관광객 수)을 추정
 - 단, 관광객 수 자료가 누락된 국가의 해외 관광객은 평균 2%⁶⁾가 한국을 방한한다고 가정
- (아시아 신흥국의 방한 관광객 수 추정) 2020년 아시아 신흥국의 잠재적 방한 수요는 약 1,500만 명까지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됨
- 2013년 아시아 신흥국의 방한 관광객 수는 약 600만 명으로, 이 중 중국이 430만 명, 중국을 제외한 신흥국이 170만 명 수준
 - UN, IMF의 인구 및 소득 전망치를 활용해 추정한 결과, 2020년 아시아 신흥국의 잠재적 방한 수요는 약 1,500만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며,
 - 이 중 중국에서 1,000만 명 이상이 방한할 것으로 추정되며⁷⁾ 중국을 제외한 신흥국에서도 약 500만 명 내외가 방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경제적 파급효과 추정

- (생산 유발효과) 아시아 신흥국 방한 관광객이 1,500만 명까지 증가할 경우 2020년 약 80조 5,000억 원의 생산 유발효과가 발생
- 2020년 아시아 신흥국 관광객 방한 증가에 따른 직·간접적인 명목 생산 유발액은 80조 5,000억 원으로 추정되며
 - 2013년 16조 7,000억 원 대비 약 63조 8,000억 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
- (부가가치 유발효과) 아시아 신흥국 방한 관광객이 1,500만 명까지 증가할 경우 2020년 약 37조 5,000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발생
- 2020년 아시아 신흥국 관광객 방한에 따른 직·간접적인 명목 부가가치 유발액은 37조 5,000억 원으로 2013년 7조 8,000억 원 대비 약 29조 7,000억 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

6) 2012년 기준 해외 관광객의 한국 방한 비율은 방글라데시가 0.3%, 스리랑카 1.1%, 인도네시아 2.0%, 중국 3.4%, 태국 6.8%, 필리핀 8.5% 등으로 추정되며, 이를 기준으로 국가별 한국 방한 비율을 적용하되 관광객 통계가 집계되지 않는 국가의 한국 방한 비율은 2%로 가정함.

7) IMF 전망에 의하면 중국은 2020년 1인당 GDP(PPP달러 기준)가 2만 달러 수준으로, 소득과 국제관광수요 간 연관 분석에 의하면 인구 대비 해외관광객 비중은 약 40%가 적용. 그러나 중국의 정치 체제, 현재 소득수준 대비 해외관광객 비중(2012년 6%) 등을 고려하여 인구 대비 해외관광객 비중이 약 20%라고 가정함.

· 아시아 신흥국 관광객 방한에 따른 부가가치 효과는 2020년 명목 GDP의 약 1.7% 규모에 이를 것으로 추정⁸⁾

- (취업 유발효과) 아시아 신흥국 방한 관광객이 1,500만 명까지 증가할 경우 2020년 약 105만 명의 취업 유발효과가 발생

· 2020년 아시아 신흥국 관광객 방한에 따른 직·간접적인 취업 유발분은 약 105만 명으로 추정되며

· 2013년 약 22만 명 대비 약 83만 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

<아시아 신흥국의 방한 관광객 수 전망>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아시아 신흥국 방한 관광객의 경제적 파급효과 추정>

| | 2013년 | 2020년(E) |
|----------|--------|----------|
| 방한 관광객 수 | 598만명 | 1,500만명 |
| 생산 유발액 | 16.7조원 | 80.5조원 |
| 부가가치 유발액 | 7.8조원 | 37.5조원 |
| GDP 대비 | 0.5% | 1.7% |
| 취업 유발분 | 22만 명 | 105만 명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주 : 명목 GDP 기준.

(3) 전체 방한 관광객 수 및 경제적 파급효과 추정

- (전체 방한 관광객 수 추정) 아시아 신흥국 성장에 따라 2020년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잠재적 총 관광 수요는 약 2,300만 명에 달할 전망

· 2020년 한국을 방문하는 해외 관광객 수는 2013년 대비 약 1,100만 명이 증가한 2,300만 명까지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

8) 2020년 한국 GDP 규모는 IMF의 전망 자료를 활용했으며 IMF의 전망은 2019년에 그치고 있어 2016~19년 3년간의 연평균 성장률을 활용하여 2020년 명목 GDP규모를 추정.

- 이 중 2020년 아시아 신흥국의 방한 관광객 수는 약 1,500만 명, 기타 신흥국에서 약 100만 명, 선진국에서 약 700만 명이 방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⁹⁾
- (경제적 파급효과 추정) 2020년 한국을 방문하는 해외 관광객 수의 증가로 약 117조 2,000억 원의 생산 유발효과, 54조 5,000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 및 153만 명의 취업 유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
 - 2020년 한국을 방문하는 해외 관광객 수의 증가로 2013년 대비 약 85조 9,000억 원이 증가한 약 117조 2,000억 원의 생산 유발효과가 기대
 - 부가가치 유발액은 2013년 대비 약 40조 원이 증가한 54조 5,000억 원으로 2020년 명목 GDP의 약 2.5% 규모로 성장할 전망¹⁰⁾
 - 또한 2020년에는 2013년 대비 약 112만 명이 증가한 약 153만 명의 취업 유발효과가 기대

<2020년 방한 관광객 및 경제적 파급효과 추정>

| | 방한 관광객 수(만 명) | | 생산 유발액 (조원) | | 부가가치 유발액 (조원) | | 취업 유발분 (만명) | |
|-----------|---------------|--------------|-------------|--------------|------------------------|------------------------|-------------|------------|
| | '13 | '20(E) | '13 | '20(E) | '13 | '20(E) | '13 | '20(E) |
| 아시아 신흥국 | 589 | 1,500 | 16.7 | 80.5 | 7.8 (0.5%) | 37.5 (1.7%) | 22 | 105 |
| 기타 신흥국 | 80 | 100 | 5.9 | 16.5 | 0.2 (0.0%) | 0.7 (0.0%) | 1 | 2 |
| 선진국 | 539 | 700 | 14.0 | 35.0 | 6.5 (0.5%) | 16.2 (0.7%) | 18 | 46 |
| 전체 | 1,217 | 2,300 | 31.3 | 117.2 | 14.5 (1.0%) | 54.5 (2.5%) | 41 | 153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주 : () 안은 명목 GDP 대비 비중.

9) 기타 신흥국 및 선진국의 방한 수요는 현재 증가 추세가 지속된다고 가정하고 최근 3년간 연평균 증가율을 이용해 추정. 이는 각 국가별 지역 분포, 소득 수준, 문화적 배경 등이 상이하고 특히 선진국의 경우 신흥국 대비 경제 성장률이 완만하므로 소득 증가 폭이 크지 않음. 이에 따라 소득을 통해 방한 수요를 추정하는 것 보다는 현재 추세를 기반으로 추정하는 것이 보다 적합하다고 판단.

10) 2020년 한국 GDP 규모는 IMF의 전망 자료를 활용했으며 IMF의 전망은 2019년에 그치고 있어 2016~19년 3년간의 연평균 성장률을 활용하여 2020년 명목 GDP규모를 추정.

4. 시사점

- 향후 외국인 관광객 2,300만 시대(아시아 신흥국 관광객 1,500만 시대)의 가능성이 예상되면서 관광 산업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여 관광객을 유치하고 미래 성장 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해야 함

첫째, 향후 국내 관광 시장의 주요 고객으로 부상할 중국, 동남아 등 아시아 신흥국 관광객 유치 확대 노력이 필요하다.

- 최근 아시아 신흥국은 지속적인 경제 발전 및 중산층 확대, 저비용항공사 증가, 한류 확산 등으로 방한 관광객 유치에 긍정적인 환경이 조성되는 상황
- 급증하는 아시아 신흥국 관광객의 방한 유치를 위해 비자 발급 편의성 강화, 한국 홍보 마케팅 전략 점검, 송출국가의 관광사업체와의 연계 강화 노력이 필요
- 특히 최근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는 중국 시장 유치를 위해 인구통계, 소득, 라이프스타일, 방한 목적 및 관광 활동 분석을 통해 세분화한 다양한 맞춤형 특화 관광 상품 개발이 요구

둘째, 관광객의 방한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재방문율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상품 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품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 레저 및 스포츠 관광, 테마파크 관광, 힐링 관광 등 다양한 상품 개발을 통해 관광지 방문, 쇼핑 관광 등 단조로운 관광 활동을 다양화하고 재방문율을 높일 필요
- 나아가 한국 관광에 대한 평판 관리를 위해 관광 상품 및 서비스 품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관광객의 한국 관광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로 각인될 수 있도록 노력

셋째, 외래관광객 유치 노력과 함께 관광객 1인당 지출 확대를 위해 특히 개별관광객 공략이 요구된다.

- 외래 관광객 1인당 지출 확대를 위해 단체관광객 대비 소비력이 높은 개별관광객에 대한 맞춤형 관광서비스 및 고부가가치 관광서비스 수요 창출을 위한 정책 수립이 요구됨
- 체험·휴양형 관광 상품 개발 등 국내 체류일을 확대할 수 있는 상품 개발, 고소득 관광객 유치를 위한 뷰티·의료·크루즈·MICE¹¹⁾ 관광 상품 등 고부가가치 상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홍보하는 전략이 필요

넷째, 급증하는 방한 관광객 수용을 위해 다양한 맞춤형 특화 상품 개발을 통한 지방 관광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

- 현재 방한 관광객의 주요 방문 지역은 서울과 제주 중심이나, 급증하는 방한 관광객 수용 및 다양한 수요 충족을 위해서는 지방 관광지 개발을 적극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동남아 국가를 대상으로 동계 관광 상품 개발, 불교 문화권을 대상으로 템플스테이 등 힐링·체험 상품의 개발 등 다양한 지역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고 홍보해야 함

다섯째, 관광안내정보의 표준화 및 체계화를 기반으로 플랫폼 및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통해 맞춤형 관광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관광안내정보의 표준화 및 체계화를 통해 정보를 통합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 및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통해 관광 편의성을 도모할 수 있는 스마트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필요

11) 기업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s), 컨벤션(Convention), 전시회(Exhibition)의 네 분야를 포괄하는 관광 서비스 산업.

- 관광지 정보 검색, 길찾기 등 단순히 관광 이전 단계의 정보 제공을 넘어 실시간 온라인 예약, 불편 사항 접수 등 관광 계획 및 실행 모두를 포괄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동시에 모바일앱 이용정보를 통해 관광객 이동 패턴 파악 등 빅데이터 구축 및 이를 맞춤형 관광 상품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전략 수립이 요구 **HRI**

백다미 선임연구원 (2072-6239, dm100@hri.co.kr)

【별첨】 분석 방법

○ 해외 관광객 수 추정 방법

- 1인당 소득 변수를 통해 2020년까지 아시아 신흥국의 국제 관광 수요(해외 관광객 수)를 추정
 - 개인이 해외 여행을 결정하는 변수로는 경제, 사회, 지리 등 여러 변수가 있으나 경제 변수가 미치는 영향력이 가장 유효한 것으로 가정
 - 여타 변수 중에서도 소득이 가장 유효한 변수로 가정하며 환율은 분석 대상 기간인 2020년까지 큰 변화가 없다고 가정
 - PPP환율이 적용된 소득 변수를 활용하여 구매력 변화를 반영
 - 아시아 신흥국과 한국과의 거리는 동일한 것으로 가정

- 추정 기준은 소득 수준 증가에 따른 해외관광객 비중의 추세 자료를 적용
 - 소득과 관광수요와의 연관성을 추정하기 위해 1995~2012년 90개국의 1인당 GNI(PPP환율), 해외관광객 비중(i 국 해외관광객 수 / i 국 인구)을 도출
 - 총 1,292개의 데이터를 2차 방정식을 적용해 소득과 국제 관광 수요와의 연관성을 분석한 후 2020년 소득 수준에 따른 해외 관광객 수를 전망

- 국제 관광 수요 추정을 위한 전망 자료는 UN 및 IMF 자료를 이용
 - 향후 아시아 신흥국의 해외관광객 비중(i 국 해외관광객 수 / i 국 인구) 추정을 위해 UN의 인구 전망 자료를 이용¹²⁾
 - 향후 1인당 소득 수준을 추정하기 위해 IMF의 경제 전망 자료¹³⁾ 중 1인당 GDP(PPP환율)을 이용¹⁴⁾

- 방한 관광객 수 추정을 위해 UNWTO 및 문화체육관광부 자료를 이용
 - 한국 방한 비율을 통해 각국의 해외 관광객 수(국제 관광 수요) 중 한국으로 유입되는 관광객 수를 추정

12) UN(2012),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12 Revision.

13) IMF(2014), World Economic Outlook, 2014.10.

14) 1인당 소득은 GDP보다는 GNI 자료를 사용하는 것이 보다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나, IMF는 GDP 데이터만 전망하며 GDP와 GNI의 격차가 크지 않아 GDP 자료를 사용.

- UNWTO의 해외 관광객 수 및 문화체육관광부의 방한 관광객수를 이용해 아시아 신흥국 국가별 해외 관광객의 한국 방한 비율(i 국의 방한 해외관광객 수 / i 국의 해외 관광객 수)을 추정

○ 경제적 파급효과 추정 방법

- 방한 관광객의 국내 지출액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자료를 토대로 추정
 - 문화체육관광부의 '외래관광객 실태조사'를 이용하여 2013년 개별 관광객 1인당 한국 지출 경비를 계산
 - 개별 관광객 1인당 한국 지출 경비의 과거 3개년 증가율을 기반으로 2020년 개별 관광객 1인당 한국 지출 경비를 추정한 후, 이를 관광객 수와 곱하여 방한 관광객 국내 총 지출액을 추정
- 경제적 파급효과 추정을 위해 산업연관표를 기준으로 관광 지출과 연관성이 높은 산업만을 분류하여 산업연관분석을 시행
 - 관광객의 국내 지출액을 쇼핑비, 숙박비, 식음료비, 교통비, 오락관련지출, 문화관련지출, 한국여행사지불비, 운동관련지출 및 기타로 분류
 - 관광객의 국내 지출과 연관이 높은 산업으로 도소매, 음식점, 숙박, 철도운송, 도로운송, 오락서비스, 문화서비스 및 기타사업서비스를 분류
 - 이상 관광 산업들의 생산유발계수, 부가가치유발계수, 고용유발계수를 이용하여 국내 지출액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
 - 단, 생산유발계수, 부가가치유발계수, 취업유발계수는 2012년과 동일하다고 가정

주요 국내외 경제지표

□ 주요국 성장률 추이

| 구분 | 2013년 | | | | | 2014년 | | | | | 2015년* |
|-------|-------|------|-----|-----|------|-------|------|------|------|-----|--------|
| | 연간 | 1/4 | 2/4 | 3/4 | 4/4 | 연간* | 1/4 | 2/4 | 3/4 | 4/4 | |
| 미국 | 1.9 | 2.7 | 1.8 | 4.5 | 3.5 | 2.2 | -2.1 | 4.6 | 5.0 | - | 3.1 |
| 유로 지역 | -0.4 | -0.2 | 0.3 | 0.1 | 0.3 | 0.8 | 0.3 | 0.1 | 0.2 | - | 1.3 |
| 일본 | 1.7 | 1.5 | 0.7 | 0.4 | -0.4 | 0.9 | 1.4 | -1.7 | -0.5 | - | 0.8 |
| 중국 | 7.7 | 7.7 | 7.5 | 7.8 | 7.7 | 7.4 | 7.4 | 7.5 | 7.3 | - | 7.1 |

주 : 1) 2014년과 15년 전망치*는 IMF 2014년 10월 전망 기준.

2) 미국은 전기대비 연율, 유로 지역과 일본은 전기대비, 중국은 전년동기대비 기준임.

□ 국제 금융 지표

| 구분 | 2013년말 | 2014년 | | 2015년 | | | |
|----|------------------|---------|---------|---------|---------|---------|------------|
| | | 6월말 | 12월말 | 1월 15일 | 1월 22일 | 전주비 | |
| 해외 |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 3.03 | 2.53 | 2.22 | 1.72 | 1.86 | 0.14 %p |
| | 엔/달러 | 105.04 | 101.44 | 119.46 | 117.27 | 117.96 | 0.69 ¥ |
| | 달러/유로 | 1.3799 | 1.3645 | 1.2159 | 1.1789 | 1.1609 | -0.0180 \$ |
| | 다우존스지수(p) | 16,577 | 16,827 | 17,823 | 17,321 | 17,814 | 493 p |
| | 닛케이지수(p) | 16,291 | 15,162 | 17,451 | 17,109 | 17,329 | 220 p |
| 국내 | 국고채 3년물 금리(%) | 2.86 | 2.68 | 2.10 | 2.04 | 2.06 | 0.02 %p |
| | 원/달러(원) | 1,055.4 | 1,011.8 | 1,099.3 | 1,083.3 | 1,084.9 | 1.6 원 |
| | 코스피지수(p) | 2,011.3 | 2,002.2 | 1,915.6 | 1,914.1 | 1,920.8 | 6.7 p |

□ 해외 원자재 가격 지표

| 구분 | 2013년말 | 2014년 | | 2015년 | | | |
|---------|--------|--------|--------|--------|--------|---------|---------|
| | | 6월말 | 12월말 | 1월 15일 | 1월 22일 | 전주비 | |
| 국제 유가 | WTI | 98.55 | 105.37 | 53.27 | 46.25 | 46.31 | 0.06 \$ |
| | Dubai | 107.88 | 109.29 | 53.60 | 44.48 | 44.65 | 0.17 \$ |
| CRB선물지수 | 280.17 | 308.94 | 234.05 | 220.97 | 218.88 | -2.09 p | |

1) CRB지수는 CRB(Commodity Research Bureau)사가 곡물, 원유, 산업용원자재, 귀금속 등의 주요 21개 주요 상품선물 가격에 동일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하는 지수로 원자재 가격의 국제기준으로 간주됨.

□ 국내 주요 경제지표 추이

| 구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 | 2015년(E) | | | |
|----------------|-------------|--------|--------|-------|-------|----------|-------|-------|-------|
| | | | 상반 | 하반(E) | 연간(E) | 상반 | 하반 | 연간 | |
| 국민계정 | 경제성장률 (%) | 2.3 | 3.0 | 3.7 | 3.6 | 3.6 | 3.5 | 3.6 | 3.6 |
| | 민간소비 (%) | 1.9 | 2.0 | 2.0 | 2.6 | 2.3 | 3.0 | 2.6 | 2.8 |
| | 건설투자 (%) | -3.9 | 6.7 | 1.9 | 1.8 | 1.9 | 1.8 | 4.3 | 3.0 |
| | 설비투자 (%) | 0.1 | -1.5 | 7.5 | 3.9 | 5.7 | 4.2 | 6.0 | 5.1 |
| | 지재투자 (%) | 8.6 | 7.3 | 6.5 | 5.9 | 6.2 | 7.3 | 7.0 | 7.1 |
| 대외거래 | 경상수지 (억 달러) | 508 | 799 | 392 | 408 | 800 | 320 | 360 | 680 |
| | 무역수지 (억 달러) | 283 | 440 | 202 | 231 | 433 | 192 | 234 | 426 |
| | 수출 (억 달러) | 5,479 | 5,596 | 2,833 | 2,936 | 5,770 | 2,949 | 3,074 | 6,023 |
| | (증가율, %) | (-1.3) | (2.1) | (2.5) | (3.7) | (3.1) | (4.1) | (4.7) | (4.4) |
| | 수입 (억 달러) | 5,196 | 5,156 | 2,631 | 2,705 | 5,336 | 2,757 | 2,840 | 5,597 |
| | (증가율, %) | (-0.9) | (-0.8) | (2.6) | (4.4) | (3.5) | (4.8) | (5.0) | (4.9) |
| 소비자물가 (평균, %) | 2.2 | 1.3 | 1.4 | 1.9 | 1.7 | 2.0 | 1.9 | 1.9 | |
| 15~64세 고용률 (%) | 64.2 | 64.4 | 65.0 | 65.6 | 65.3 | 66.0 | 66.5 | 66.2 | |

주 : E(Expectation)는 전망치.